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 운주사 | 2만원



▶탈색된 중국 돈황의 벽화, ▶중국 막고 98쪽에 그려진 벽화 '세여인'.



▶현재 기념명이 있는 수원관음도 중 가장 오래된 경신사 소장 수원관음도 (1310년). ▶중국 돈황보살 중에서 최고 미인(?)으로 꼽히는 57굴 수화설법도 중 협시 보살.

비단길의 끝자락에서 빛나는 고려불화

고려불화. 우리 민족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미술 품이다. 그러나 고려불화의 대부분은 왜구의 침범과 약탈로 일본에 옮겨졌다. 그리고 일본에서 국보나 문화재급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불화는 그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책은 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고려불화에 표현된 아름다움의 원형을 찾고자 노력했다. 책은 고려불화가 진정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임을 다양한 도판과 이론적 실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려불화에 담긴 불교사상은 무엇이고, 그 속에는 어떤 상징들이 숨어 있는지, 또 각각의 구도나 그림속의 문양과 소품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 복건성 덕화요에서 발굴된 여성 관음.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다. 불교에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고려불화다. 따라서 고려불화에 국가의 문화적 역량이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수려하면서도 가깝지 않은 채색, 엄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구도, 유려하고 섬세한 선

묘 등을 통해 세계가 인정한 고려불화가 탄생한 것이다. 고려불화는 비잔틴 양식과 같은 서구 문화와는 여러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이 책은 고려불화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원인을 색, 구도, 기법, 안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명해 고려불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고려불화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부처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미타불을 비롯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 등이, 보살로서는 관음보살 세지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과 그리고 선재 등자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불·보살은 때로

화가이자 불교학 전문가인 저자 미술사적 가치와 교리 상세히 설명

자신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그려지기도 한다. 이 책은 이들 각각의 등장 배경과 역할 등을 경전에 근거하고 시대상황에 비춰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이 위치하는 구도 역시 그런 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고려불화에는 도상과 색채와 상징에서 많은 문화적 영향이 보인다. 그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원은 돈황으로 대표되는 실�크로드 문화이다. 저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1차 원고를 완성한 후 실�크로드를 직접 답사했다. 특히 돈황 벽화에 나오는 도형, 비천 등에서 관련 근거를 찾았다. 고려불화는 양식상 서역사람인 위지슬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발전시켰다. 즉 서역 미술의 종착역이자

완성품이 바로 고려불화인 셈이다. 저자는 이것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찾아내 실증적으로 풀어낸다. 단적인 예로 서역미술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색채구성에 머문 반면, 고려불화는 입체적인 양식과 화려한 색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안료도 돈황은 식물성·광물성·인공 안료를 뒤섞어 사용한 반면, 고려불화는 퇴색과 변색이 거의 없는 광물성 안료를 주로 사용했다. 이 책이 일반 미술서와 다른 점은 불교 교리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불교 교리와 경전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김영재 씨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과 불교라는 균형잡힌 잣대로 시종일관 이 책을 서술하고 있기에 종교적인 말방망이 돼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고려불화의 총체를 쉽게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최인호 지음 | 구본창 사진 | 여백 펴냄 | 9천원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그린 가족소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펴냈다. 넋까지 않은 집안의 3남3녀 중 다섯째로 성장한 최씨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이 책은 최씨 어머니가 예순여덟 살 때부터 숨을 거둔 여든 살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특히 늘그막에 치매에 걸려 온 가족을 안타깝게 했던 어머니와의 일화는 수필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루는 최씨가 생일잔치 음식을 비닐봉지에 주워담는 어머니에게 "거참, 왜 그렇게 주책부리는 거예요?"라며 언성을 높인다. 하지만 늘 자식들이 먹다 남긴 찬밥을 무리해서 다 드시고 소화가 안돼 신트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런 극성이 우릴 키워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되뇌일수록 숙연해지는 '아! 어머니' 치매 걸린 노모 등 작가 자신의 가족사 소설로

치매에 걸려 "왜 이렇게 죽는 게 힘드냐"며 투정 부리는 어머니에게 "치사하게 죽음을 무기로 우리들을 위협한다"며 이제 그만 돌아가시기를 은근히 바라다가도, 어머니의 삶이란 결국 우리의 삶도 저처럼 고통스러운 것 이라는 생모병사의 어떤 견본일 뿐이라는 생각에 눈물과 한숨을 짓기도 한다.

풍수지반이라고 했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어머니의 끝없는 회상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리워할 뿐이다"는 진리에 서서히 죽고 있었던 할머니(씨앗)였다"고 자책한다.

어머니의 임종 후 그는 "나는 매 끼니 고기반찬에 맛있는 식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무슨 불평이 많은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산 채로 고려장시키는 고문으로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할머니(씨앗)였다"고 자책한다.

작가는 백년의 뉘우침이나 백마리의 미사연구보다 단 한번이라도 효의 실천이 아쉬웠음을 솔직히 털어 놓는다. 생전 처음 71세의 어머니를 모신 부산 여행에서 평소처럼 급한 성격 탓에 어머니와 다투고 다신 소리 지르지 않도록 맹세했던 일, 노망에 걸린 어머니에게 짜증과 권태와 신경질이 폭발쳐 울랐던 일... 등 모두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와의 기쁘고 슬펐던 추억들을 진솔하게 쓴 이 가족 소설은 그만의 이야기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가족이 제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들려주는 소중한 이야기다. 또한 이 책에는 아카데미학 사진으로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사진작가 구본창이 '어머니'를 주제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실었다. 정상급의 사진작가와 소설가가 이루어내는 어머니에 관한 이미지 양상들은 독자로 하여금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잊혀져가는 소박한 옛 정서도 함께 일깨워주고 있다.

김동훈(시인)

동승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생활의 지혜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10월 1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 1월 · 자비와 보시
- 2월 · 선행과 악행
- 3월 ·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 4월 · 중오와 반성
- 5월 · 인내와 노력
- 6월 · 애착과 고통
- 7월 · 애욕과 탐욕
- 8월 · 율바른 삶
- 9월 · 친구와 가정
-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 11월 · 자유와 행복
- 12월 · 진리와 무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